

究가 不充分하다는 事實等이 韓國의 마아케팅을 土着化하는데 問題點으로 擡頭되고 있는 것이다.

마아케팅연구가 現位置에서 脫皮하여 “韓國的”인 것으로 接近하기 위해선 몇가지 問題가 提起된다. 첫째, 우리 마아케팅研究에 必要的인 資料를 體系的으로 蒐集, 整理해야하며, 둘째, 歷史的 現實과 現實狀況에 立脚한 問題意識을 定立할 것에 精力을 기울여야 하며, 셋째, 마아케팅研究의 土着化는 隣接科學과의 協同을 通해서 促進되어야 하며 또한 促進됨을 認識하고 推進해야하며, 넷째, 科學的 研究方法의 追求가 強力히 推進되어야 한다. 이러한 研究態度에서 우리 마아케팅研究가 未來指向的인 事가 될 것이며 土着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土着化의 길은 결코 平坦하지 않다. 그리고 土着化는 學徒들의 集中的 努力과 集團的 努力에 의해서만 可能하다. 學徒들은 오늘의 現實에서 使命感을 갖고 知識傳達에 끊임없이 全力을 다하며 서로 協同하며 知識의 增加를 이룩하여야 한다.

經營學의 韓國化

李 學 鍾*

韓國의 經營學은 짧은 期間內에 括目할만한 發展을 하였으나 先進國에서 開發研究된 外國知識을 그대로 導入하여 應用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經營學의 韓國化의 必要性和 이에 대한 研究方向을 標示코져 한다.

I. 韓國的 經營學의 必要性

先進國의 經營學知識은 文化環境與件의 差異로 因하여 國內에서의 直接的인 應用에 큰 差異를 보여 이에 대한 韓國的 經營學의 土着化가 必要하다. 韓國的 經營學의 土着化를 위해서는 學問의 基本的인 土臺와 體系를 파악함으로써 韓國企業經營에 대한 確固한 知識이 必要하며 다른 文化環境에서의 經營體系와도 相互比較分析함으로서 學問의 發展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最近에 이르러 韓國企業이 量的으로나 規模로 보아 擴大되었고 經營過程이 차차 整頓되고 合理化되어 감에 따라 職業經營(professional

*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教授

management)이 登場케 되었으며 國內企業組織에 대한 研究分析의 基盤과 環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狀況下에서 企業體 또는 組織體의 經營育成 및 能率向上을 促進키 위한 韓國의 固有한 組織體經營에 대한 學問的 知識이 더욱 必要하게 되었다.

II. 韓國的 經營學의 研究方向

經營學의 韓國化를 위하여 韓國組織體를 中心으로한 研究資料(empirical data)가 必要하며 이것은 必須條件이라 할 수 있다. 韓國組織體로부터의 資料는 事例研究(case study), 調查研究(survey research), 小集團시뮬레이션과 實驗(small group simulation and experiment), 被研究者의 觀察(participant observation) 등의 研究方法를 通하여 蒐集될 수 있으며 蒐集된 資料를 通하여 韓國組織體의 韓國的 基本知識이 形成된다. 또한 隣接 社會科學分野에서의 研究結果를 韓國的 經營學研究의 背景的인 資料로 하여 韓國化 研究努力을 促進하여야 하며, 특히 研究方面에서는 統計學을 引用하여 學問的인 研究資料 蒐集과 分析을 하여야겠다. 이와 아울러 經濟 및 企業成長에 따르는 諸問題에 대한 研究에 經營學의 韓國化가 지니는 重要性에 비추어 使命感을 갖고 韓國化를 이룩하기 위해 資源投入이 必要하겠다. 經營學의 韓國化를 위해 政府나 財團으로부터 研究資源援助를 學界에 주어 올바른 方向으로 研究努力을 效果的으로 促進시켜야 하며 國內企業體의 擴大와 經營合理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研究와 資料蒐集에 대하여 協助하는 體制가 갖추어져야 한다.

組織에 대한 學問이 繼續 發展키 위해서는 國內環境에 適合한 固有한 經營으로 國內組織化成長과 能率向上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이 教育面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學問的인 立場에서도 經營學을 研究하는 學者들이 이룩해야할 使命인 것이다.